

## 사랑의 종

김 종 구 (사관, 구세군원주영문)

매년 연말이면 거리의 상징처럼 어김없이 등장하는 ‘구세군 자선냄비’가 있다. ‘딸랑 딸랑’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는 겨울 거리에서 사랑을 호소하며 지나는 이들의 작은 성금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한지 어느덧 70년이다.

자선냄비는 지금으로부터 백여 년 전인 1891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부둣가에서 도시 빈민들과 재난을 당한 선원들을 돕기 위해 구세군의 한 사관이 부둣가에 쇠술을 걸어놓고 도움을 요청한 것에서 시작됐다.

“ 이 술을 끊게 합시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술에는 동전과 음식들이 가득 쌓였고 이것으로 1천여 명의 사람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할 수 있었다. 이웃을 위해 고안된 이 사관의 기발한 생각은 구세군의 자선냄비 운동으로 정착돼 현재 세계 100여개 국에서 매년 계속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28년 12월 15일 서울 도심에 자선냄비를 설치해 사랑의 손길을 호소한 이후, 한해도 거르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자선냄비는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긴 했지만 성금은 늘 가장 어려운 이웃을 찾아갔다. 60년대엔 영세민,

70년대에는 이재민 구호에 치중하다가 80년대에 들어서는 육아원, 양로원 등 사회복지 시설 지원에 중점을 뒀다. 90년대는 소년소녀 가장에게 장학금을 주거나 심장병, 개안 수술 등 의료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95년 당시 생후 8개월 된 아기를 처음으로 수술하면서 시작한 심장병 수술은 지난해 이미 100명을 돌파했다. 몇 년 전부터는 실직자를 위한 취업알선과 쉼터, 노숙자 사랑방 사업의 운영 자금으로 쓰인다.

자선냄비는 어려운 세상에서 삶을 이끌어주는 나침반과 같은 구실을 하고 있다. 83년 1억 원을 돌파한 성금은 지난 해 14억 원에 이르기까지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물가가 폭등하고 경기가 열악할수록 더욱 큰 힘을 발휘했다. 지난해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으나 목표액을 훨씬 넘겼다. 남을 한 번 돌아보는 마음, 궁핍하게 살아도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진정한 부자가 많다는 증거이다.

“불우한 이웃을 도읍시다.

가난한 이웃을 도읍시다.

지금도 추위 속에서 먹을 것이 없어

떨고 있는 이웃이 있습니다.

주는 자가 되지 않으렵니까?”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2000년 힘겹게 이 어려움을 이겨 내려는 우리들의 이웃이 많은 이 때에, 그러기에 자선냄비는 더욱 타는 목마름으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여름 나물

박 훈 서 (목사, 충북 충주 야촌성결교회)

하나님께서서는 농사를 너무나 잘 지으신다. 봄에 텃밭 한 골에 쑥갓을 뿌렸었다. 상큼하고도 쑥 향이 나는 맛 때문에 매년 그 맛을 보기 위해 쑥갓을 심는다. 허나 기다리던 쑥갓은 나지 않고 농촌 분들이 잡초로 보는 비름만 수북하게 그 골을 덮어버린 것이었다.

밭에 난 비름은 뽑아내는 것이 상식이다. 상추나 배추나 근대에 비하면 그 가치를 낮게 취급하는 것이 상례이다. 하지만 비름은 최고의 여름나물이다. 비타민C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나물인 것이다.

비름나물과 함께 비빔밥을 해 먹으면 어느 비빔밥보다 진한 맛을 느낄 수 있다. 쑥갓농사는 망쳤는데 대신 비름농사는 성공을 했다. 다른 농사꾼이 우리 밭에 와서 농사를 지은 셈이 됐다.

씨를 겨우내 땅속에 보관했다가 초여름에 싹을 틔우고 자라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손, 그 손에 의해 조그마한 텃밭은 황재를 한 듯 풍성함이 넘친다. 20평쯤 되는 텃밭엔 스무 가지 정도의 채소가 자라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아끼는 작물은 내 손으로 뿌린 작물이 아닌 비름이다. 가장 맛있어 하는 여름나물이기 때문이다. 심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을 너무 크게 받고 있는 한 예를 비름을 통해 느낄 수 있었다.

## 학교가는 길은 자연학습장

아이들이 학교 가는 길은 자연학습장이다. 교회처마 밑에는 찌르레기의 둥지가 있다. 깨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새끼들의 울음소리가 여간 시끄러운 것이 아니다. 조금 지나다 보면 논과 밭 사이로 할미새들의 날렵한 날개 짓을 볼 수가 있다. 꼬리를 위로 아래로 흔들며 나선형의 곡선을 그으며 나는 그 모습은 감탄할 만 하다.

논에는 눈부시게 하얀 멧쟁이 새가 우아한 자태로 조심스레 거닐고 있다. 먹이를 발견하면 무아지경에 빠질 듯한 심오한 집중력을 발휘한다.

논을 벗어나면 마을을 가로지르는 시냇물을 만난다. 아침마다 그곳을 지나며 항상 아이들이 확인하는 것이 있다. “아빠 오늘은 원앙이가 안보여”, “어 저기 원앙새 한 쌍이 보인다.” 몇 년 전부터 오월쯤 되면 원앙이 한두 쌍이 이 시냇가로 날아든다. 천연기념물이기에 더 관심을 갖고 아침마다 확인을 하는 것이다.

원앙이가 노는 장소에서 조금위로 가면 논에 물을 대기 위한 ‘보’가 있는데 그곳은 들오리들의 좋은 먹이 공급처이며 수영장이 되는 곳이다. 가끔은 물총새도 들러 물고기를 사냥하기도 한다. 이곳은 동물원에 가지 않아도 자연을 통하여 자연의 섭리를 배우게 된다. 희귀새가 되어 버린 제비가 등교 길 앞을 힘차게 비상(飛上)한다. 아이들의 눈은 하늘을 향한다. 그 누구의 모습을 응시하듯 말이다.